

# 광주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내년 6월께 열린다



### 53개국 문화장관·대표단 200여명 참석 광주 위상 높여 문화전당서 주요행사 치러...3박4일로 늘리는 방안 검토

광주시 개최가 확정된 제7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Asia-Europe Meeting·아셈) 문화장관회의가 내년 6월께 개막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셈 개최 시기를 내년 6월로 잡고 기존 2박3일간 치러지던 행사를 3박4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 행사는 문화부와 광주시가 재원 20억원을 분담해 치른다.

아셈문화장관회의에는 아시아·유럽 53개국 문화장관과 대표단 200여명이 참석한다. '문화와 창조경제'(Culture and Creative Economy)라는 주제로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 워크숍을 개최한다. 세부 주제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문화산업의 미래', '문화콘텐츠와 창조산업의 국가간 교류', '전통 문화유산과 창조경제'다.

문화전당은 이번 행사의 주요 무대가 돼 문화도시 광주의 저력을 선보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워크숍 등은 문화전당 내 '예술극장'과 '국제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치러질 계획이며, 문화전당의 야

외광장 공간은 각종 연회나 문화공연의 부대행사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문화자산과 저력을 선보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 ACE-Fair,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세계김치축제 등 각종 문화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셈 개최 시기와 맞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도의 문화자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다.

시는 국제행사 품격에 걸맞은 수송·숙박·의전 지원 등 완벽한 행사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행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아셈문화장

**?** 아셈(ASEM) 싱가포르가 1994년 창설을 제안해 한국,중국,일본과 ASEAN 및 EU 등의 동의를 거쳐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출범했다. 세계 정치·경제의 3대축(아시아, 유럽, 북미)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계가 미약했던 아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협력체다. 회원국은 아시아 53개국, 회의는 2년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관회의 유치로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창조 역량을 아시아-유럽은 물론 전세계에 알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적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셈 개최도시 선정에 앞서 실시한 공모에서 5개 시·도를 제치고 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수능일 '119 이송서비스' 전화예약 받아요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해 '119 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이송서비스는 전화 예약을 받아 시험 당일 119 구급차 등을 이용해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고 시험이 끝난 후 다시 병원이나 자택으로 이송해 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전

화로 예약하면 된다.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당일 갑작스런 상황으로 지각할 우려가 있는 수험생도 119에 전화하면 '119 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근술 구조구급과장은 "수능 시험일에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들에게 시험편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시간대 출동하는 소방차는 경적이거나 사이렌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내달 4일 '빛고을 김장사랑 나눔대전'

### 광주시, 30일까지 참가 접수

광주시는 오는 12월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김치타운(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빛고을 김장사랑 나눔대전'을 개최한다.

시는 김치타운에 가족·이웃과 함께 간편하게 김장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마련하고 ▲김치 나눔 행사를 준비하는 기관·단체가 참가하는 '사랑의 김치나누기'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집 김치담그기' ▲김치 소비 촉진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김치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참가자는 행사장과 작업대, 앞치마, 두건 등 비품을 무료로 받고 HACCP인증과 전품 인증을 획득한 광주김치업체로부터 국내산 100% 절임배추와 양념을 구입하게 된다. (김장 비용 4만 4500원/10kg)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전화(062-674-2777) 또는 모바일앱(www.



광주김장대전.com)으로 접수한다. 단체와 기업체는 11월중에도 김장나눔 행사를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장나눔 행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김장을 어려워하는 일반 가정에서도 김장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인니 청소년의 유쾌한 한국 체험 광주를 방문한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매단시의 청소년들이 최근 광주 학교를 방문해 한국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30세대 공동체 주택 건립

### 신혼부부·대학생 등 60~80% 저렴하게 거주 가능

광주시가 남구 월산동 일원에 추진중인 '광주형 공동주택건설 시범사업'의 '소규모 공동체 주택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규모 공동체 주택건설'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30억원을 확보

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존 주민과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60~80%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 주거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은 정부의 대규모 주거지역 주도에서 마을 정비와 연계하는 소규모 지역 참여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지자체

가 토지매입비를 제공하고 국가와 LH가 건축비와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국토교통부·LH(시행사)·지자체 협업사업이다.

시는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사업'의 단위사업인 '소규모 공동체 주택건설 30세대 규모'를 적용코자 남구와 함께 신청했다.

소규모 공동체 주택사업은 30세대 규모로 최소 건축비만 3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부지 1330㎡ 매입비는 1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시는 시행사인 LH와 사업협약을 하고 사업비 분담 등 사업 시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사업'은 시가 민선6기 5개 자치구에 각 1곳씩 총 5곳을 추진키로 하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 ▲소규모 공동체 주택건설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며, 지난 10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공모'에서 '생활기반시설분야'가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지하철 화재대응훈련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최근 도산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폭탄테러로 인한 전동차 화재발생을 가정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